



별별마을의 완벽한 하루

윤혜연 글 | 노인경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활동1 외투가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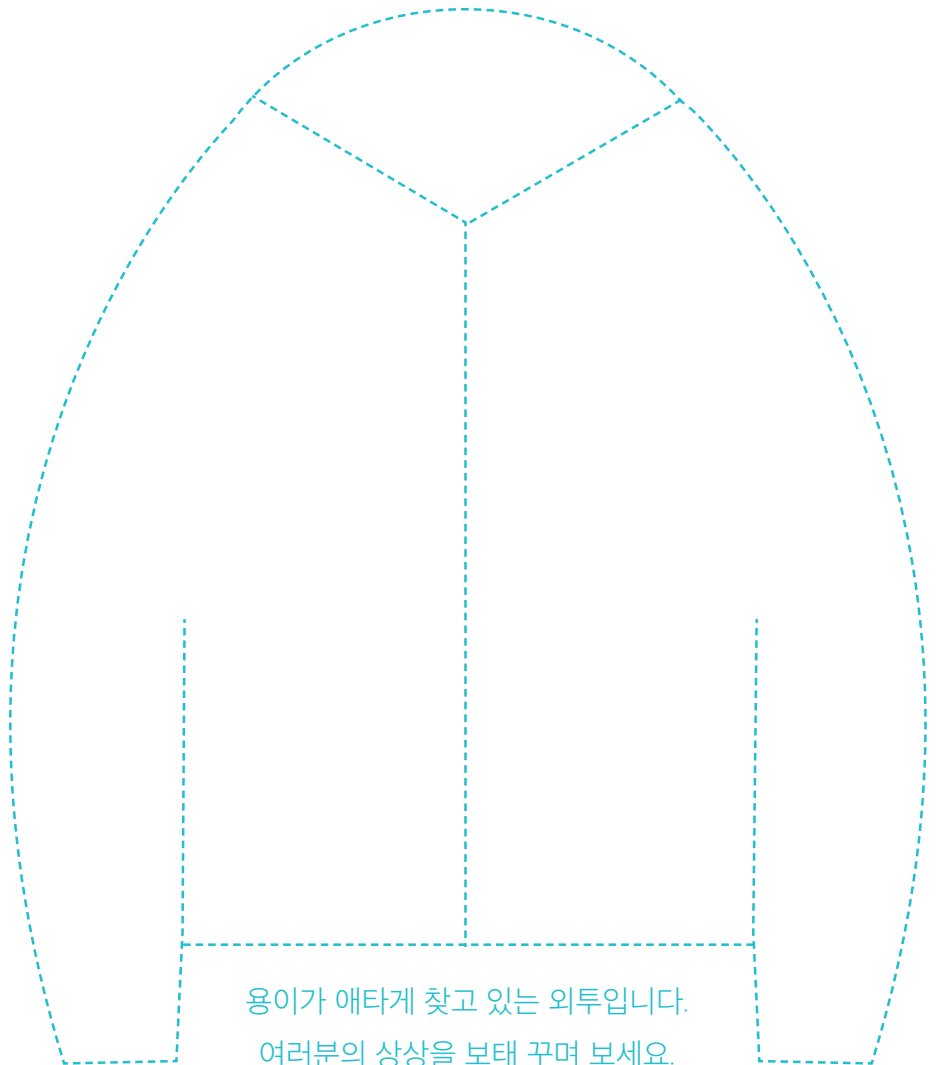
하늘이 아주 맑은 어느 날, 용이의 세 번째 외투가 사라졌어요.

철봉에 걸어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함께 용이의 외투를 찾아 나서 봐요.

먼저 용이의 말을 잘 듣고 사라진 외투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왕사탕만큼 커다란 단추가
달려 있고, 무엇을 넣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깊은 호주머니가 있는 외투야.”



용이가 애타게 찾고 있는 외투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보태 꾸며 보세요.

내가 짹짹한숲에 산다면

짹짹한숲엔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세모난 집엔 아주아주 예민한 불근누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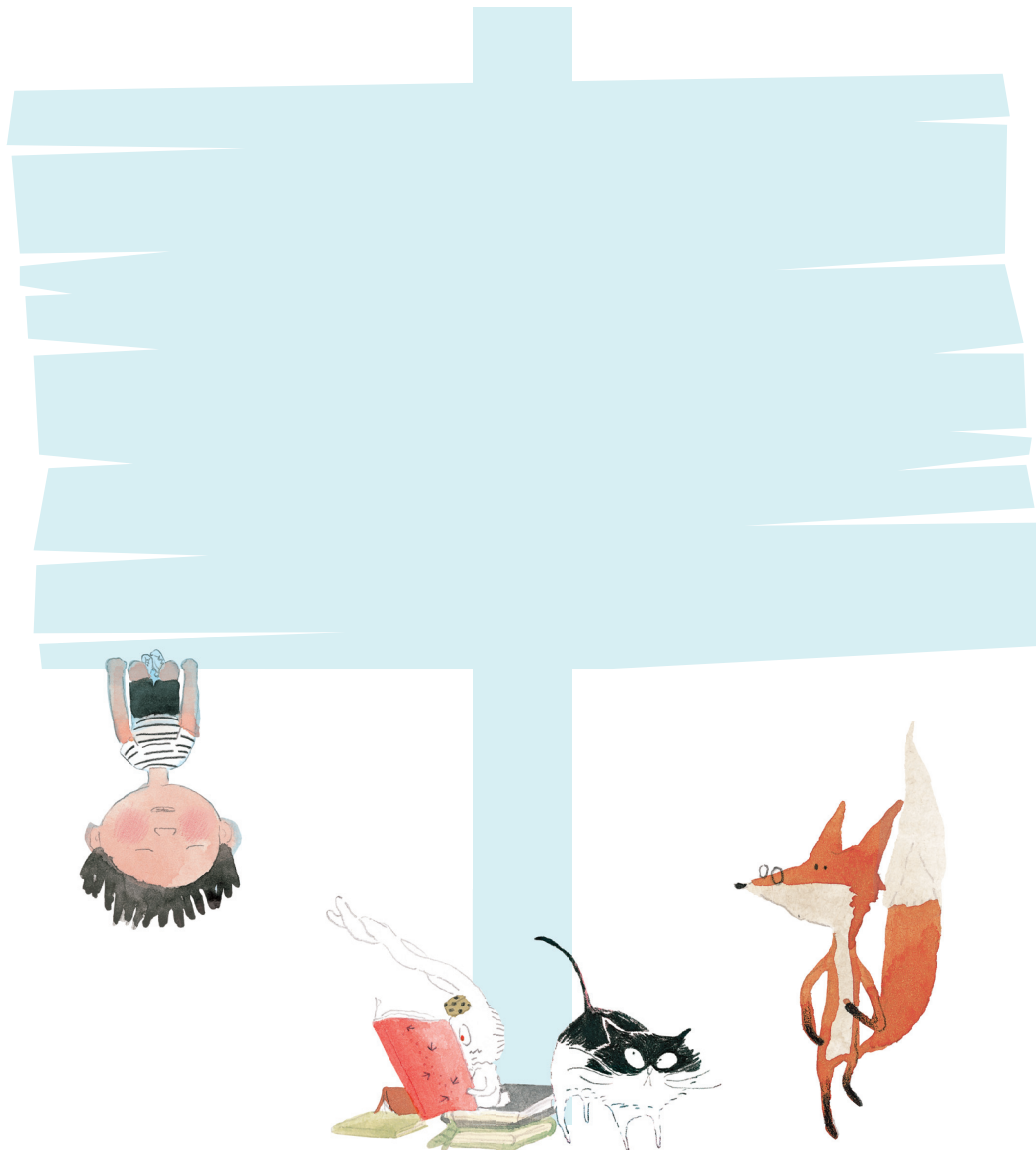
네모난 집엔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검은발이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집 앞 안내판엔 뭐라고 적고 싶은가요?

“나는 집을 짓고 싶어.

그 앞엔 이런 안내판을 세워 둘 거야.”



활동3 깜깜한숲으로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자

별별마을 사람들은 깜깜한숲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어요.

치킨집 아저씨는 환희의 신발을, 문구점 주인은 작년에 잃어버린 고슴도치를,
별별전자센터에서 일하는 형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책을 찾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나요? 깜깜한숲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를 찾 습 니 다

무엇을 찾고 싶은가요?

언제 잃어버렸나요?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왜 찾고 싶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